"생명들은 다 생명체 에너지로 태어나"

☞ 19면에서 계속

저 물에서 노는 고기들도 메뚜기도 또 풀 섶에서 나오는 벌레들도 다 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그 생명이 다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닌 도리를 아시면은 그런 사고들이 그렇게 벼락같이 일어나지 않죠.

▲질문자4(통역):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인연들과 하나로 느낀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주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는 꼭 필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얘기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습 없어도 영혼은 살아

▲스님: 이거 봐요. 보이는 데는 내가 그걸 해결을 해야 하고 그렇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해결을 꼭 해야만 되는 게 없어요. 안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서로 돌려요. 그러니까는 이 보이지 않는 진짜 나는 그걸 해결을 하려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거 같은데 알면은, 한번 결정적으로 말을 해 놓으면은 어디서 그렇게 되는지 아실 수 없게끔 해결이 납니다.

▲질문자4(통역): 감사합니다.

▲질문자5(통역): 질문이 길었는데요,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생명이 죽었다가 재생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수십 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는 아마 백 만 명밖에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이 늘어난 인구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거기서 늘어나는 인구는 또 살지 못하고 껍데기가 없어지죠. 모습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모습이 없어지면은 영혼이 살게 되죠. 그 영혼이 살게 되면 영혼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는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태어나게 돼 있어도 공부한, 진짜로 이 마음공부를 한 사람들은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태어나질 않고 어떤 돌도 자기 몸이 되고 집이 되고 또 어떤 산도 자기 몸이 되고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가지 각색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자5(통역):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질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저는 질문을 다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로 이렇게 제한을 시키니까 조금 서운했습니다.

▲질문자6: 오늘 이렇게 스님을 뵙고 법문을 받들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독일 북부 올덴북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어떤 질문을 올려야 할지 몰라 그 대신 제가 어떻게 해서 주인공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독일지원을 알게 되기 전 제 인생은 한치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살얼음을 걷는 듯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였는지 모른 채 저는 어느 날부터 저 스스로에게서 도망을 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멀리 말입니다. 사실 저는 무감각

자기 육신이 자기고
내가 모든일을 했고
내가 모든걸 가졌다고
단정지어 여러종교
나타나는 겁니다

해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것도 느끼고 싶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따뜻함과 포근함을 갈망하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저는 이런 게임에서는 결코 승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저와 제 안 사람은 독일 신문에 실린 독일지원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선원을 찾은 저는 포근한 선원의 분위기에 매료되었으나 매우 조심스럽고 마음에 간격을 두는 태도로 견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원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려웠고 그것은 시간적 여유를 찾고자 하는 또 다른 저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견제는 독일지원 스님의 따뜻한 배려로 저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직감에 서서히 신뢰감을 쌓아가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스님은 제가 피할 수 없는 숙제를 하나 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숙제는 스님 또한 저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숙제는 제가 저를 바라보는 시각보다 스님이 저를 더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는 뭐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작은 숙제를 푸는 것으로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숙제의 내용인 즉 매일 마음 속 깊이 간절하게 100번을 '주인공!' 하고 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집이 황고집이었던 저는 스님께서 똑같은 숙제를 두 번이나 내주었을 때야 겨우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제가 오늘날까지 마음 공부를 통해 얼마나 안으로 컸는지는 제켜두고라도, 공부하는 동안 저에게는 세상에 모든 생명들이 소중하고 각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작지만 소중한 변화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훨씬 더 고요해지더니 살도 약간 찌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와의 인연들을 대하는 것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려 했던 저는 그저 묵묵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제 스스로를 되도록이면 외면하려 했던 제가 저 스스로를 똑바로 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불성에 놓고 관하라

예상치도 못하는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는 자신을 알아 가는 과정인 이 주인공 공부는 뼈를 깎는 수행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리고 또 피해서도 안 되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자신을 진실하게 알아 가는 것이야말로 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하루에 100번씩 안으로 간절히 주인공을 불렀는지를 센 적이 없어 알 수는 없으나 이 숙제를 하는 동안 저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튼 철조망을 발견했지만 그것을 걷어낼 엄두는 감히 내지도 못했습니다. 겁이 났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철조망을 걷어내는 마음의 숙제로부터 몸을 숨길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 공부로부터 오는 마음의 고통을 똑바로 직시하면 마음 속 깊이 받아들여 그 고통으로부터 배우는 것 또한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라는 것을 스님께서는 스님의 생을 통해 보여주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 저희들의 귀감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스님, 저는 언젠가 스님의 진리를 전하는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이 자리에서 원을 세웁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감사합니다. 진실로서 하고자 하는 공부를 정말 해 들어가는군요.

▲통역자: 스님, 다음 질문하실 분은 신문기자입니다. 탑지라는 신문에서 오신 기자 분입니다.

▲질문자7(통역): 스님, 질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선 독일에 이렇게 와 주셔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치시는 제자들 중에서는 과학과 스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접목시키고자 연구하는 그룹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 세상을 보면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상의 삶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삶이 아닌 가상의 삶, 과학 속의 삶, 컴퓨터 속의 삶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그 가상의 삶에서도 과연 불성이 있는 것 인지요. 스님께서는 과학을 많이 부처님 법과 접목시킨다고 그래서 이 질문을 올립니다.

▲스님: 사실 있어요. 정신계의 자기가 즉, 불교에서는 주장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불성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은 물질계이지 않아요? 이건 물질계의 모습이죠. 이건 물질계의 모습이니깐 그건 한계가 있구요. 그러나 정신계에의 모습이 없단 말이죠. 모습이 없이 그냥, 이 공부를 할 때에 눈이나 귀나 모두 몸뚱이 속에 있는 게 공생으로 돌아가죠. 공생으로 돌아가고 공심으로 돌아 돌아가고 공체로 돌아가고 공용으로 돌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모두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은 너무 물질계에 끄달려서 이게 그렇다 그러고 인정을 하고 저게 그렇다 하고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죠.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요. 보이는 것만 해도 그게 사실이지만 살아 나가는 것도 그렇게 살아 나가요. 그건 우리가 진짜로 보이지 않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가 둘 아니게 항상 같이 살 수 있고, 일체가 다 같이 돌아간다면 뭐이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 하나도 할 게 없죠. 그러니깐 여러분은 무슨 일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 자기에게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더래도 꼭 거기다가 그렇게 놓고 관하시면 돼요.

▲사회자: (독일어로 말함) (대중 박수)

▲스님: 아까 질문하러 왔던 사람이요, 질문을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사람들만 이렇게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은 다 이렇게 생명체 에너지로 태어나죠. 에너지로, 각각 어떠한 돌이든지 흙 속에 묻혔든지 어떠한 나무 속에 묻혔든지 모두 그것이 에너지로다 화해서 생명들이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거죠. (대중 박수)

▲사회자: 여러분 모두 일어 서 주십시오. 이제 스님께서 법좌에서 내려오시겠습니다.

※위 법문은 2001년 8월 11일 독일 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신간

불교 신앙사에서 가장 굵고 깊은 맥을 형성하는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불교 신앙사에 있어 단연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미타신앙!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뿐만이 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 • 오회염불 • 관상염불 • 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감히 불교 신앙의 결정판이라 자부하며, 불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